

가사노동의 가치와 평가에 대한 고찰

Wert und Bewertung der Arbeit in Haushalt

梨花女子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助教授 文 淑 才

Dept. of Household Administration, Ewha Women's Uni.

Assistent Prof.; Sook Jae Moon

<목 차>

I. 서 론	가치와 평가
II. 가사노동의 개념	V. 사회적 측면에서 본 가사노동의
III. 성역할과 가사노동	가치와 평가.
IV. 경제적 측면에서 본 가사노동의	VI. 결 론

<Zusammen fassung>

Die Arbeit im Haushalt, der unmittelbaren Versorgung des Menschen gilt, dürfte der älteste Begriffsinhalt von Arbeit überhaupt sein. Diese Arbeit im Haushalt zur unmittelbaren Daseinsvorsorge steht heute aber in unserer Gesellschaft in zunehmendem Maße zur Disposition. Solange in einer Gesellschaft Arbeiten oder Arbeitsbereiche der Daseinsvorsorge ganz selbstverständlich übernommen werden, weil sie nicht delegierbar erscheinen und genügend Menschen für diese Aufgaben verfügbar sind, werden ihr Wert und ihre Bedeutung dem einzelnen und der gesellschaftlich bewußt.

Wir behandeln die Leistung der Familienhausfrauen wie die gute Luft. Die Leistung wird selbstverständlich erwartet, und erst eine nicht erbrachte Leistung erregt persönliches oder gesellschaftliches Aufsehen. Die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 ist auch ohne Produktions- und Kapitalkonto der privaten Haushalte konzipiert worden. Eine Diskussion um Wert und Bewertung der Hausarbeit ist nicht nur eine Frage der volkswirtschaftlichen Rechnungsführung. Sie geht darüber hinaus an, den Bestimmungsfaktoren nachzugehen, die dazu führten, daß die Hausarbeit heute so wertlos erscheint, daß annähernd niemand sie erlernen und nur noch wenige sie machen möchten.

I. 서 론

많은 사람들은 가사노동의 가치와 평가라는 주제에 대하여 지극히 비인간적인 시도라고 생각한다. 즉 가사노동은 개인적이고 사적이며 사랑과 헌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숭고한 행동으로서, 이 아름다운 행동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인가? 하고 의아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부들이 그들의 역할수행을 통해서 커다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가사노동을 통하여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¹⁾. 이런 가사노동에 대한 과소평가는 일상생활에서 가사노동을 자루하고 반복적이고 식구를 뒤흔다거나 하는, 빛 없는 일이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가사노동에 대한 이 이율배반적인 가치평가, 즉 숭고한 행위라는 생각과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가사노동은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규명을 요구한다.

가사노동이란 인간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참여하므로써 노동의 근원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산업화와 문화의 "제 2의 물결"은 사람들을 가정에서 사회로 집결시켰으며, 가사노동도 "가사노동의 사회화"라는 전제 아래 가능한 사회에 이전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왔다. 그러나 어느 사회도 가족의 교육, 양양, 양육의 과업을 완전히 대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경이적인 의학의 발전도 바람직한 환자의 완쾌는 병원의 치료와 더불어 가정의 정성어린 간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이중역할의 갈등속에서 헤메며, 가정에서 지불되지 않는 노동을 위임받고 있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의 가치와 평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노동을 분담시키는데 있어서 누가 담당할 것이며, 어떻게 이 담당자를 구하고, 또 이를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고심하고 있다.

오랜 역사속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부양, 양육, 교육의 노력이 가정속에서 여자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지불되지 않는 노동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노동을 댓가가 지불되는 영리노동에 예속된 노동으로서 간주하고 있다. 공기가 맑은 동안에는 그 맑은 공기의 가치를 알지 못하듯 가정에서 여자의 가사노동 능력은 공기와 같이 취급되고 있다.

여자의 가사노동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기대되고 위임되었으며, 어느 누구도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약 누가 그 노동 능력을 잘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인적 혹

은 사회적으로 즉각적인 비판을 받게 된다.

가사노동은 또한 그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가사노동은 가족의 재생산을 위해서 service를 제공한다. 이 service 제공은 용역의 생산이므로 그 댓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론경제학에 있어서 노동의 댓가는 보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생산적 노동이 아닌 소비노동이라는 전제하에 화폐로 평가할 수 없는 무보수노동으로 간주되어 국민총생산의 계정에서 그 가치가 제외되고 있다.

이와같이 가사노동의 가치와 평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의 능력주의 가치관 밑에서 형성된 가치척도 때문에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사노동을 통하여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가사노동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가족의 생존을 보존하고 인격을 완성하고, 나아가 사회의 대를 이어주고,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현명한 사회인을 기르는 가정의 사회적 기능은 누구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을까? 이는 미래 사회를 좌우하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가사노동의 가치가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으며, 왜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힘으로써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와 평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가사노동의 개념

우리가 가사노동의 가치와 평가에 대하여 논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우선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이란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이 행하는 일들을 얼마만큼 가사노동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가정에서 주부들이 하고 있는 재산관리, 학부형회 참석, 아이들 책 읽어주기, 세타짜기, 손님 접대 등등의 일을 가사노동에 넣어야 할지 여가에 넣어야 할지 분명치 않다.

이렇게 한계를 명확히 하기에 분명치 않은 일들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매우 많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의 규명은 연구목적에 따라서 실용적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가사노동의 규명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사노동으로 간주하기에 타당한 노동의 필요성에 대한 측정과, 노동의 능력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노동시간의 측정이다.

노동의 필요성에 대한 측정은 사회의 규범에 의해서 또한 가족의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한 한편으로는 가사노동을 조직하는 가정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규정된다. 정원과 놀이터가 없는 아파트촌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매일의 산보는 필요한 것이므로 노동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충분한 놀이터와 정원이 있는 가정에서는 산보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으므로 여가로 간주된다. 따라서 필요한 가사노동은 항상 상황과, 그리고 개인적인, 사회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규정된다.

노동의 필요성을 측정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가사노동으로 간주된 노동과업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동시간을 측정할 때, 노동을 위하여 소비한 “노동소비시간”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동소비시간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의 노동력과 작업에 대한 요구수준, 그리고 작업조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고추 1kg을 다듬는데 정상적인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다면 1시간 걸리는 것을, 할머니가 3시간 걸려 다듬었다면 노동 소비시간에서는 이를 3시간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이 노동소비시간은 매우 주관적이고 비교의 척도가 없으므로 우리는 가능한 객관적인 노동시간을 측정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요구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즉 일정한 요구수준과 작업조건 속에서 정상적인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다.

이와같이 필요한 노동시간의 규명과 노동요구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가사노동과 이에 필요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가사노동은 누구나 언제 어떻게 할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

는 개인적인 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시간측정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가사노동을 비생산적 노동능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을 위한 시간소비를 줄이는 것은 사회정책의 목적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찰과 관심을 표명하고 일종의 사회적 과업의 차원에서 수행된다. 이와같이 가사노동의 개념에 대한 규정은 가사노동의 사회적관계와 목적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가사노동은 개개인의 개인적소비를 위한 준비를 의미하고, 좀더 넓은 의미에서는 가족의 부양, 양육, 교육 등이 포함된다. 가사노동의 범위를 좀더 포괄적으로 잡으면,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노동으로써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노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연구과제에 따라서 실용적 측면에서 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명확한 것은 사회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모든 노동은 가사노동으로 간주 된다는 것이다.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노동=가사노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가사노동은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자원을 분배하고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봉사까지 포함된다. 이 모든 일들은 한편으로는 가족의 개인적 관계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거의 모든 가정과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여자에게 맡겨져 왔다. 그러므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노동=가사노동=여자의 일”라는 등식을 세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또한 직업노동에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결국 일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하는 반면, 남자는 더 많은 업적을 남기고 권력을 사회에서 행사한다 이러한 현상이 자연적인지에 대한 의문과 현재까지 이와 같이 나타난 현상에 대한 합리적 규명이 요구된다.

III. 성역할과 가사노동

가사노동이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가사노동의 가치와 평가에 대한 논의를 개개의 사회

속에서 부여된 여성의 지위와 관련을 맺게한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가치와 평가가 여성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에서 부여된 여성의 지위에 의해서 그들의 노동가치가 평가되는지는 의문이다.

인류학적 입장에서 보면 생물적 측면에서 인간의 행동은 동물과 흡사하다. 그러므로 인간생존을 위한 행동성향은性に 관련된다. 즉 동물의 경우, 대부분 갓 태어난 동물의 양육은 일차적으로 암컷이 맡아서 한다. 암컷은 거의 혼자서 부양, 양육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 역시 생물적 전제하에서 동물과 흡사하므로 성차(性差)에 의한 노동분화가 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부양, 양육, 교육을 여성의 중요한 과업으로 위임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행동성향은 노동분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우선적으로 모성의 보호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 생물적 조건에 의한 성차가, 모성 없이도 부양, 양육, 교육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kibbutz 같은 제도를 결코 도의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설립은 일종의 이상이다. Kibbutz의 2·3세들도 좀더 어머니 자신의 책임속에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모성임을 증명하고 있다³⁾.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분화에 관한 행동을 분석적인 관점에서 논하는 것은 위험하다.

어떤 사람들은⁴⁾ 인류학적 관점에서 여성의 존재를 규명하고 그의 역할로써 여성적 행동성향을 지적한다. 또 일부의 여성방론자들은 남녀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성차에 의한 노동분화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부의 온건주의자는 생물적 측면에서 성차에 의한 행동성향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것이 실생활의 노동분화를 규정짓지는 못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학습과 훈련에 의하여 인간의 행동은 길러지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것까지의 논쟁을 개괄해볼때, 제시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은 어느 논도 남성의 가사노동에서의 해방을 뒷받침해 주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하였고, 또 어느누구도 가사노동과 관련된 인간행동의 노동분화가 자연법칙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사회도 인간의 생물적 행동성향을 근거로 노동분담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상황을 위한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규명한다면 노동분담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가사노동을 비생산적으로 간주하고 사유재산을 여성압박의 근원이라 주장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하여 가사노동을 여하한 방법으로 제한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가사노동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소멸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가사노동은 왜 공동으로 해결하기 곤란하고 거의 여성에 의해서만 전담되고, 또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낮은 위치에 있게 되는가?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는 오늘날 취업노동에 비해서 정당하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 사회에서의 그의 가치는 어떤 합리적규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비합리적인 사회의 자비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은 그의 가족을 위하여 가사노동을 한다. 그 대가로 그는 가족들로부터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얻는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그의 능력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회적 인정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을때야 비로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그 결핍을 보충하기 위하여 최소의 객관적평가를 부여할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은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은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가사노동을 거부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점차 여성들이 결혼을하지 않으려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하고 또 자녀양육을 가능한 전가 하려고 하는 경향으로서 표명된다. 이스라엘의 Kibbutz와 사회주의 사회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어떤 사회적 제도도 가족의 부양, 양육, 교육의 기능을 완전히 대행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과연 누가 사회의 대를 이어주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현명한 사회인을 길러는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생존과 미래에 관련되는 많은 문제점을 시사해 준다.

IV. 경제적 측면에서 본 가사노동의 가치와 평가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평가는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의 권력에 따라서 높이 평가되기도 하고 낮게 평가되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을 *oikonomia*로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chrematitik*과 구별하여 사회윤리의 구심점으로 삼았다⁵⁾.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 즉 *oikonomia*의 기본개념은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한 가장의 가정 관리로써 형성된다. 그는 가정의 목적이 富의 증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유지 및 보전이라고 규명하였다.

이러한 과업을 달성키 위하여 가장은 가정의 관리적, 윤리적 책임을 맡고, 이 과업 수행을 위해 노동을 아랫사람들에게 분담시킨다. 이 아랫사람 속에는 하인과 여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 개념은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이에 수반하여 남성의 관리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여성의 노동능력을 낮게 평가하였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철학은 17, 18세기까지의 유럽의 가정철학 확립에 영향을 주었고, 노동과, 경제, 윤리적책임에 대한 상류계층의 가치관 형성에 기초가 되었다. 또한 농부들의 계층에서는 노동은 남녀 노소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었고 아랫사람에게 노동을 전가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자연 가사노동은 그 가치를 과소하게 평가 받았다.

들과 밭에서의 노동은 생존을 위해 절대적이고, 가축사육이나 밭농사들은 미물수가 없고, 가축하나를 잃어버리는 일은 곧 이들의 생존과 결부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자들 스스로도 가족을 위한 부양, 교육, 양육의 일보다 생존을 위한 영리적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고대유럽의 가사노동을 과소평가하는 생각은 카톨릭의 엄격한 남녀 과업의 구별과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종교적 윤리관에 의해서 강화되었다.

이런 종교적 윤리관 속에서 여자들은 그들의 사

회적 자유와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숙명적으로 받아 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규범은 말린루터의 종교개혁과 이에따른 신교의 새로운 윤리관 속에서 서서히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다. 신교의 윤리에서는 영리노동과 직업의무의 수행을, 신에 의해서 선택된 과업이라고 주장하며 직업적노동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노동의 합리적조직과 번영을 정당화시키는 반면, 부를 자신의 안녕과 편안함,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겸약의 생활을 강조했다. 이러한 신교윤리의 경제관에 의해서 시민의부가 축적되어 자본주의사회가 시작되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속에서 노동분업, 합리성, 업적에 관한 경제관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영리노동, 직업노동에 대하여 아주 강한 평가절상이 일어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는 절하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oikonomia*의 가치관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Homo Oeconomicus(경제인)”⁶⁾라는 사상의 출현과 더불어 가사노동은 비합리적인 소비경제의 한 부분으로 전락되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와서야 비로서 미국의 “New Home Economics”에 의하여⁷⁾ 가사노동에 대하여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New Home Economics”에 의해서 가사노동은 여자가 아니고 생산노동과 결부된 노동으로써 직접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수단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족의 부양, 양육, 교육의 기능은 경제의 합리적 원칙에 의해서 어떤 법칙을 설정할수도 없다는 경제학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경제학에서는 화폐를 취득할 수 없는 종류의 생산 즉 상품가치가 없는 생산은 그것이 비록 인간 생활에 중요하다 할지라도 경제적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소득계정에 있어서도 생산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노동과, 화폐로 평가될 수 없는 노동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사용가치만을 지닌 생산 즉 화폐로 평가되지 않는 생산은 주부의 가사노동과 농가의 자가보유미다. 그러나 농가의 자유보유미는 시

* Homo Oeconomicus란 경제인이라는 말로써 경제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에서 팔리는 쌀값을 기준으로 해서 화폐액으로 평가될 수 있기에 국민소득계정에 오른다. 그러나 주부의 가사노동만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예외적인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만이 영구히 이 원칙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가사노동이 국민총생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알아보자.

두 사람의 주부가 각기 자기세탁을 하게 되면 통제면에서 국민소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주부가 서로 상대방의 세탁을 하고 보수를 지불하면 현재 산정되는 국민소득의 임금항목에 가산된다. 그러므로 가정용역이 대부분 가정밖에서 이루어지든지, 또는 가정안에서라도 보수를 지불하여 시키고, 주부들은 그로 인하여 얻은 여가시간을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면 그 나라의 국민소득은 현재 산정하고 있는 국민소득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국내의 무상노동이 가내 또는 기타의 임금노동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수십년간에 걸친 국민소득총액의 비교를 곤란하게 할 경우도 있다⁷⁾.

이러한 모순은 Samuelson의 총국민생산의 개념 속에서⁸⁾ “순경제적 후생 (Net Economic Welfare)” 이라는 의미로 그 시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지향하는 생활의 질이라는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는 아직 일상생활에 적용되지 않았고, 또한 얼마나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흥미를 표시할지는 의문이다.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문제는 가사노동이 경제이론상으로 명확한 규명이 어렵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의 평가가 여성의 지위와 능력평가에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꼭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V. 사회적 측면에서 본 가사노동의 가치와 평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일반적으로 국가와 행정의 공적인 힘이 작용하는 공적분야와 사회적으로 보장된 시민의 사적분야로 분류된다. 이

러한 분류는 시민의 생활을 사회적 생활과 개인적 생활로 구분시킨다. 시민의 공적생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노동과 정치활동 등이 포함되고, 개인적 생활에는 집, 가족, 여자 등과 관련된 가사노동이 포함된다. 사회의 이러한 분류는 —공적분야와 개인적분야— 가사노동을 공적평가에서 뒤로 물리치게 만들었다.

18세기의 불만서혁명(불만서)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부여하였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전통적 가치관을 지향하였다. 그들은 전통적 남성의 역할로써 영리노동인 직업노동을 간주하고, 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로써는 가정에서 하인을 지도하여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키우는데 한정시켰다. 즉 권위적이고 기사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직업에 성공하는 남성과 감정적이고 다정하고 봉사적으로 가사노동을 원만히 수행하는 여성을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19세기에 들어와 싹트기 시작한 교육의 기회균등도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로써, 혹은 여성적인 직업을 선택하는데 이용되었다.

이에 반하여 남자들은 인생의 진로를 찾고 직업노동의 성공에 그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여자들은 직업생활에 있어 어느정도 남자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남자들은 가사노동에 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가사노동에 있어 여자를 조금도 대신할 수가 없었다. 최근의 급진적인 여성해방론자들은 이런 불평등에 반기를 들고 성차에 따르는 교육과 직업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남성적 직업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여자들에게는 가사노동은 하나의 짐이고, 가사노동의 필요성과 그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는 일종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사상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직업노동을 여성해방의 척도로 삼고 남녀동등하게 직업교육을 받았으므로 동등한 사회적 인정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물론 부부가 동등하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그 실현성에 있어 많은 문제를 제기시킨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가사노동을 위하여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고, 또 가사노동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자들은 위임받은 가사노동을 전담할 뿐 아니라 사회적 인정을 위해서 직업노동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사노동과 직업노동이라는 이중의 역할은 여자들에게 많은 갈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자는 모든 힘을 직업노동에 투입하고, 가정에서 내일을 위하여 휴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는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노동에도 전념할 뿐만 아니라 또다른 정력을 가정에 투입하여야 한다. 즉 여자들은 남자와 동등한 한개의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하여 남자보다 두배의 힘을 투입하여야만 한다.

이런 이중역할에서 야기되는 과중한 노동은 여자들에게 심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가져온다.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행동하려는 것이 정상이라면 여자들도 이런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려고 노력할 것이다. 즉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에는 힘을 적게 들이고, 가치를 많이 인정받는 노동에는 힘을 많이 부여한다. 이런 현상은 자연히 가사노동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심한 경우에는 가사노동을 사회적 인정을 위한 방해요인으로 간주하고, 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VI. 결 론

많은 여자들이 가사노동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또 남자들이 이 분야의 노동을 분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노동분야의 가치와 평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여성의 임금에 대한 계산, 이혼시 배상, 상해 및 사망시 보상 등의 실질적 측면에서도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의 규명을 요망하고 있다.

가사노동은 재생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인간은 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받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보존을 위하여 스스로 가사노동을 해야한다.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어린이나 병약자, 장애자가 있는 가정은 더욱더 많은 가사노동이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가사노동은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가사노동은 다른 사람을 위한 용역이고 사회적

으로 많은 비용을 절감시키는 요인이지만, 대가를 받지 않는 무상의 노동이다. 가사노동은 가족의 대를 잇는 기능을 가능케하고,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뿐 아니라 가족의 사회화기능을 수행한다. 가족의 의, 식, 주 생활을 해결하고 가족의 생활문화를 형성하며 어린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며 그들의 장래를 계획한다.

이 모든 가정에서의 노동은 시간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 시간자원은 저녁이나 주말, 혹은 휴가때로 미룰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은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도 완전히 대체될 수 없다. 사회적인 제도는 단지 가정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고 도와주는 응급조치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의 이 모든 과업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여전히 개인적이고 사적이며 비생산적 노동으로 간주되어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낮게 인정되며 무보수의 노동으로 평가되어야만 하는가? 가사노동의 가치가 낮게 평가됨으로써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기꺼히 하려고 하지 않으며 또한 가사노동을 통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가사노동의 그 모든 과업을 수행할 것인가?

가사노동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행복하고 인간적인 사회가 되도록, 그리고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의 수행과업에 합당한 정당한 가치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와 평가의 모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오늘날의 능력주의 가치관 밑에서 물질위주로 형성된 능력의 가치척도, 즉 재산이나 계위, 명예, 권력에 의해서 능력을 재는 척도가 더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 얼마만큼 인간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공헌했는가 하는 “인간복지의 공헌도”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정립되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고, 그 능력 또한 높이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그 능력이 평가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가사노동에 참여할 뿐 아니라 주어진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애쓸 것이다. 이로써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능력평가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과 더불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여자 스스로가 그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여자들은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을 폐쇄적으로 개인적 생활을 위해서 살았고, 그래서 그 자신과 그의 노동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오해하고 있다. 만약 주부가 그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늘 불평하고, 또 가치없고 빛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그의 가족들도 가사노동을 그렇게 평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깨닫고 이를 수행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당한 평가와 대가를 받도록 요구할 줄 알아야 하며, 이를 논리적으로 규명하여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과 노동의 가치는 자기 스스로가 지켜가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타인이 또한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문숙재(1980),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조사", 「논총」, 제37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pp.371~379.
2. Walker, K.E. Syracuse(New York) area, 1967~63. 장명옥 과정관리학 재인용 교문사. 19f1, p.177.
3. Liegle, L.(1980), "Neuere Veröffentlichung zur Erziehung im Kibbutz," Zeitschrift für Pädagogik. 26Jg. H.6, pp.921~929.
4. Schweiter, V.R.: "Überlebt der Haushalt das Jaahr? Essen, 1975.
5. Aristoteles(1958), Politik. 1 Buch, 9. Kap. Phil. Bibliothek, Bd. 7. p.20.
6. Ferber, M.A. and Birnbaum, B.G.(1977). The "New Home Economics." Retrospects and Prospe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4, No.1, pp.19~28.
7. 이윤근(1976), "주부노동의 가치" 「여성문제 연구」 제15집 효성여대부설 한국여성문제 연구소. pp.141~153.
8. Somuelson, P.A.(1973), "From GNPO t N-EW," *Newsweek*. April. 9. p.43.
9. 이정우(1972), "가족성원간 가사분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0권 제 2 호